

현대패션에 나타난 五色의 동·서양 색채에 관한 연구

김미경* · 임영자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I. 서론

한국의 전통복식을 보면 五色의 상징적 의미와 상생·상극 원리를 잘 활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위하여 五色이 다 들어간 색동을 사용하고 여성의복의 황의홍상, 관복에 있어 버선은 흰색으로 신발은 흑색으로 하여 상생 원리를 활용한 예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색채관이 서양의 색채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그 자취를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五色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색채 개념 즉, 상징적 의미와 배색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을 분석한 후 동·서양의 색채 개념 비교와 동·서양의 색채 개념이 절충된 오행색상론의 현대적 실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五色의 동·서양 색채개념

동양의 색채관은 우주만물의 현상과 생성소멸을 설명한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오행인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색은 청·적·황·백·흑으로, 이와 같은 五色은 색채 자체의 미보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오행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상생하고 상극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상생·상극배색의 원리는 서양의 색채조화론에 의한 유사·대비원리와 매우 비슷한 개념을 나타낸다. 동양의 색채개념이 사상적 접근에 의한 것인 반면 서양의 색채개념은 과학적 접근에 의해 형성되었다. 다양한 학문적 연구에 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갖춘 표색계와 색채조화론을 활용하며 축적된 상징과 이미지를 적용시켜 미학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서양 五色 분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五色을 동·서양 배색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색의 상생배색과 색상대비는 동일하게 적색을 배색하여 한난대비의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상극배색은 명도대비와 유사성을 보이며 명암대비의 조화를 나타냈다. 따라서 청색의 상생·상극배색은 서양의 대비원리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적색은 상극배색과 색상대비가 적색의 속성에 반발하는 대비효과를 보였다. 황색의 상극배색과 채도대비는 명도차가 큰 배색을 하여 유사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채색인 백색에 흑색을 배색한 상생배색과 명도대비가 흑-백 대비의 조화를 보였다. 흑색의 상극배색과 대비배색은 유채색을 배색하여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IV. 결론

五色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는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색마다 한, 두가지 동일한 의미의 상징이 있었다. 이것은 五色이 가장 기본적인 색이며, 오랜 세월동안 자연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연상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배색원리인 상생·상극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서양의 유사·대비개념이다. 상생원리는 상호구성색이 서로 도와 길한 기운을 생성하는 목적이 있고, 유사원리는 비슷한 속성의 색을 배색하여 공통성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상극원리는 서로 밀치려는 힘이 작용하는 관계이며 대비원리는 대조성을 강조한 원리이다. 이에 따르면 상생·유사원리는 순환적이며 수동적이지만 상극·대비원리는 역동적이며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五色의 동·서양 배색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동양의 五色개념이 서양의 색채조화론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색채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五色에 대해 재인식하고 나아가 색채계획이나 컬러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